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20호
4월 27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한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68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추천 결의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4월 11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68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의뢰가 공식 요청됨에 따라 임원후보자를추천하는 등 총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총회일정을 점검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26:31-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행하여야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서기 이용주 목사의 회원점명 후 조용목 목사는 그동안 총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정책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총회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교단헌법수정 인준건으로 제84조 2항 자격과 권한과 관련하여 총회 임원자격을 총회장의 경우 25년에서 20년으로 부총회장 총무의 경우 20년에서 15년으로결의했다.

또한 총회장은 가급적 총회 임원경력에 있는 분 중에서 선임하는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68차 총회 총회장 및 임원후보자는 선관위 공문에 의거 정해진 날짜까지 입원후보 등록신청자가 없어 헌법규정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천거했다.

‘두 종류의 세례’



조용목 목사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행 10:44~48)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례에 관하여 분부하신 말씀에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두 종류의 세례가 언급되었습니다. (마 28:18~20, 행 1:4-6)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세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미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은 성도도 세례의 신령한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물세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세례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는 세례 받는 자가 물에서 나올 때 그가 죄악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 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음을 공표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물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으로, 세례의식의 참되고 깊은 의미를 생각할 때 세례 받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둘째, 성령세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빈곤과 능력의 결핍은 성령세례에 관한 무지함과 무관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대한 것이므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모든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리 또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성령세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음”이나 “성령세례”라고 표현되는 성령체험은 두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세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충만을 받는 체험으로서의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같이 성령충만을 받게 하는 성령세례를 “성령 받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성령충만함, 성령 받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령충만을 체험하는 성령세례는 단 한번이지만 성령충만은 일생 동안 거듭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령충만함을 의미하는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며 성령충만을 거듭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에 일어나 내적인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세례 의식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죄 씻음 받은 것과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 옛 사람은 장사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न 것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능력을 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신자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정책위원회 추천 임원입후보자 서류심사...공고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4월 15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8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



의 인도로 시작되어 강태진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정의섭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30일(금)까지 임원입후보자가 없음으로 헌법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후보자들의 입후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 입후보자의 관련 서류를 정리한 결과 자격심사가 완료되어 임원후보자를 공고하기로결의했다.

따라서 목양신문 1120호(19년 4월 27일 자) 1면에 공고된다.

제68차 정기총회 준비 만전, 미자립교회 지원 등

WCC 종교다원주의 반대, 핵 폐기·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67차 총회 제12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웅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12회 임원회가 지난 4월 22일(월) 오전 11시 30분 총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려 WCC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을 몰아내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북한의 핵 폐기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이경진 목사의 기도,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이날

마 16:24-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한 회기 동안 대과 없이 사명을 감당해온 임원들을 축복한

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임웅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임웅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신재영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정책위원회 의결비롯 각종 행사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 기입 청원, 전도사인

명 청원, 교회 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전출입 청원, 선교사 기입 청원, 교역자유지, 사임 청원 내용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오는 5월 20일(월) 개최되는 68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2019년도 총회주일(6월 19일 주일), 감사위원회 모임, 예산위원회 모임, 지방회 미자립교회 지원 신청, 2019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사감독회 개강, 선교사목사안수 등 각종 행사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68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부총회장 후보



정의섭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후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서기 후보



정영진 목사
순복음갈릴리교회

재무 후보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회계 후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2019년 4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정의섭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유감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모시킨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오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

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 없이 여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 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여질 수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역연합회 위원장 조직의 전 등 논의

한기총, 제30-7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4월 15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0-7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성경 860구절 제2번 출판의 건으로 전광훈 대표회장은 번역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헬리어, 히브리어, 한글 성경을 온라인에서 비교 분석하여 오류를 보정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대표회장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김용도 목사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연합회(253개 지역) 위원장 조직의

건으로 지역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의 조직을 한 달 안에 완료하고, 한기총의 총회대원이 위원장이 되어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김한식 목사에 대한 개인 자격정지와 기독교윤리위반 언론에 관한 조사로 뉴스앤조이와 교회와신앙을 이단음향언론으로 규정하는 것, CBS를 반기독교언론으로 규정하고 각 교단에 후원 금지를 요청하기로 한 것, 한기총 주최의 국가조찬기도회 실시를 결의했다.

기독교 사이버 공격의 건에 대해서는 범무법인 로고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표회장이 설명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재판의 건으로 한기총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해 대응하기로 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

서울지역 장애인합창단 8팀 비롯한 국내 장애예술가들의 축제의 장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광영)와 이창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문화예술의 활동에 대한 홍보와 그 역할을 알리고자 국회의원과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합창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50회를 맞는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로 서울지역의 장애인합창 발전과 인식개선에 기여해 장애인합창단의 예술성을 알리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서울지역의 장애인합창단 8팀이 출전했다.

출전팀으로는 사랑부합창단, 다온합창단(사회복지법인다온회), 에버그린합창단, 대길푸른초장합창단, 서울푸르네합창단, 나

누리합창단, 어울누리합창단(서울시립지역장애인복지관), 골프존파스텔합창단 등이다. 축하공연으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 소속 문화예술학교 나눔첼버오케스



트리의 할아버지 시계와 대학축전 서곡의 오프닝공연과 우리가락 민요메들리 자매 이지원, 이승연의 비람의 빛깔과 경기민요 뱃노래를 연주했다.

희망의 손길로 따뜻한 나눔봉사 펼쳐

(사)월드뷰티핸즈 후원, 휴먼종합관리(주) 주최로

휴먼종합관리(주) 박민주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지난 4월 8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사)해돋는 마을(이사장 정한일 목사)에서

노숙인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으로 섬겼다. 이들은 이어 무의탁 노인과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섬



김의 봉사량 봉사를 실시했다.

박민주 대표이사는 “휴먼종합관리(주) 임직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이 노숙자에 대한 사랑 나눔을 통해 봉사자 본인의 마음이 더 기뻐으며 흐뭇한 만족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휴먼종합관리(주)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인 노숙자·다문화·한부모가족 등에게 K-뷰티봉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장수사진 촬영과 액지증정 등으로 적극적인 뷰티서비스를 실시하는 국제뷰티구조개발NGO (사)월드뷰티핸즈(WBH)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봉사량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 위해 서울역 기도회

북한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박해 1위를 차지

고난주간을 맞아 통일광장기도회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남한 선교사들(김정옥,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 외 남한국적 탈북민 선교사 3명)과 필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주간 통일광장 연합기도회’를 지난 4월 15일(월) 저녁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연합기도회는 통일광장기도연합 주관으로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서기청), 북한정의연대, 통일소망선교회, 주영광교회, 에스더기도운동, 부천, 인천 통일 광장 기도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현재 북한 정권에 의해 6년 넘게 강제 억류되어 있는 김정옥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대표가 참석하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작년 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전국민들이(평화에 관한) 기대감에 빠져있었고 그도 동생 선교사를 만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옥 선교사의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고, 또 신변이 매우 위급

하다는 소식까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조속히 생사 확인, 면담, 석방과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간중에 나선 최정화 씨(28세, 탈북민)는 탈북하여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나누었다. 그는 18세 때 집안 빚을 갚기 위해 탈북했으나 하루 20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리고, 견디다 못해 도망했다가 다시 붙들



려 머리칼을 잘리고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리로 가족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기도했는데 1년 후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 한국에 입국해서 친구의 권유로 단기선교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자신이 주인되었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 파병 55주년 기념행사 진행

한교연, 국가사회적 관심 위한 결의대회 등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월남 파병 55주년을 맞아 파월 장병들에 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한교연은 올해가 월남 파병 55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국땅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부상 휴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

는 파월 장병과 그 가족들의 희생이 잊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처우 개선과 우리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고 파월 장병과 순국 장병 가족을 위한 위로예배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교연은 이를 위해 파월장병에 대한 보은과 함께 아직도 북한에 억류중인 선교사

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교연 임원단은 중심으로 5월중에 베트남 나트랑 지역 등 치열한 전투로 국군 장병과 미군의 희생이 컸던 주요 격전지를 돌아보고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는 ‘대신’ 소속 아니다”

예장대신총회, 성명서 통해 법원 판결 내용 해명



자신을 총회장으로 표기한 대신총회의 추천서를 제출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대신총회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한기총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 왔었다.

하지만 최근 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신 총회장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밝히며, 그 진실을 두고, 교계에 또다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전 목사는 지난달 유총국 목사를 상대로 한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 한바 있다.

이를 두고 전 목사는 자신의 총회장 지위가 법적으로 확인됐으며, 그간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에는 자신의 대신총회를 한기총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대신총회는 전광훈 목사가 승소한 소송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유총국 목사를 대신총회 대표자로 소송을 진행해 총회장 지위를 다퉈는데 유 목사는 현재 백석

대신 소속으로 애초에 대신총회의 대표자도 아니며, 이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백석대신의 유총국 목사 입장에선 전광훈 목사와 대신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두고 다툼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런 맥락에서 유 목사는 이번 소송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신총회는 “대신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구하고자 하면 대신교단 대표자인 안태준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데, 현 백석대신교단 소속인 유총국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법원은 명확한 판결을 위해 유 목사에 답변을 요청했는데, 유 목사는 백석대신 소속으로 이 소송에 답하거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답변이 없는 피고(유총국 목사)가 원고(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교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자신들이 직접 나서 고발에 항소했음을 덧붙였다.

총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재서 교수 선임

비신학 전공자가 총장이 된 것은 총신대 역사상 최초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이승헌)는 지난 13일에 총장 최종 후보에 오른 이상원 교수와 이재서 교수를 놓고 투표를 진행해 참석 이사 10명의 만장일치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해 정년퇴임한 이재서 교수(사회복지학, 사진)가 총신대학교신임 총장에 선임됐다. 비신학 전공자가 총장이 된 것은 총신대 역사상 최초다.

이재서 신임 총장은 1963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15세에 중도실명된 1급 시각장애인인 이 당선인은 서울맹학교 시절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발리 그라운드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난 뒤 일생



을 장애인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총신대학교 3학년 재학 시절인 1979년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인 한국발달선교단을

설립한 이래 오늘까지 4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총신대 졸업 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성서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템플대학교원에서 사회복지행정학 석사, 유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총신대 교수로 재직, 지난 해 정년퇴임했다.

현재 세계발달연합 총재, 세세밀밀 대표이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내게 남은 1%의 가치>,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아름다운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말할 이야기> 등이 있다.

새 임원 선출, 순종하는 일꾼 될 것 다짐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진장길 목사)는 지난 8월 26일(화) 원주반석교회(담임 우영하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진장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정주영 목사의 대표기도, 우영하 목사의 행 17:30~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박규희 목사의 헌금기도, 이한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회의는 지방회장 진장길 목사의 사회



로 서기 정주영 목사의 회원 점명과 전회의 록 낭독 후 각종 안건을 토의하고 지방회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다음회기 새 임원으로

지방회장에 박순용 목사, 부회장에 이성은 목사, 총무에 최정희 목사, 서기에 정주영 목사, 회계에 박규희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단 신천지의 접근방법 등에 대해 특강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4월 1일(월) 오전 11시 새벽교회(담임 손인환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예배 전 김리함 목사의 찬양인도 후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정근 목사의 사회로 순인환 목사의 대표기도, 정진균 목사의 성경봉독, 김성원 장로(교회복음신문 사장, 부산기독언론인협회 회장, 이단 신천지와의 소송 끝에 승소)의 이단 신천지에 대한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김 장로는 요일 2:22-23 말씀을 본문으로

로 한 특강을 통해 신천지의 전략, 접근방법, 교리 내용 등을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강의 함으로써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이한숙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정기지방회 안건 및 토론, 서기 정진균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김정근 목사의 총무보고, 회계 이한숙 목사의 제정보고 후 반인홍 목사의 진행으로 신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에는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 서기 손인환 목사(새벽교회), 회계 김리함 목사(사랑의순복음교회)가 선출되었다.

폐회 후에는 새벽교회에서 제공한 풍성한 뷔페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회자 다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4월 8일(월) 오전 11시 열린축복교회(담임 전하세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제 68차 총회 경기지방회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기도, 지방회 서기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빌 4:6-7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한 해 동안 사명감당하도록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했다. 또한 '목회자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



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와 염려하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서있어야 함'을 당부하며 축복했다. 이어 회계 최금자 목사(온누리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광고에 이어 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지방회에서는 지방회 새 임원으로 경기지방회 회장에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와 부회장에 은금홍 목사(선한이

웃교회), 총무에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래교회), 서기에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 재무에 유정숙 목사(시온성순복음교회), 회계에 조광현 목사(드림교회)를 선출하였다. 이후 각부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회 증경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폐회기도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그리고 3부 교제시간에는 열린축복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회원 간의 친선을 도모하였다.

목회자 기도회, 교단과 총회를 위해 기도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4월 16일(화) 오전 11시 은혜교회(담임 박우진 목사)에서 제46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이날은 특별한 지방에서 오는 목사들의 안전과 고난주간을 맞아 각 교회에서 행해지는 특별예배를 고려하여 기존과 달리 낮에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밤에 진행했던 기도회도 은혜로웠지만 이렇게 낮에 모여 기도하니 더 많은 목회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예배는 신임총무 조길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재무김정순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최정식 목사의 막 10:46-52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적을 체험



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어 조길수 목사의 인도로 교단과 총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회와 산회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회 장소를 제공

한 은혜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장소를 옮겨 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맛있게 먹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인하여 한 층 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엘사랑교회창립예배, 영혼 구원의 사역 다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흥규 목사)는 지난 4월 15일(월) 오전 11시 아산시 시민로 334-1 엘사랑교회(담임 정진학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안흥규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영권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마 16:13-18 말씀을 본문으로 '한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

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듯이 엘사랑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강태진 목사(대구경북지방회 증경회장, 안동성막교회 담임)의 권면과 김영준 목사(대구경북지방회직전회장, 갈릴리소망교회)의 축사, 오수경 목사(충서지방회 재무, 장지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가 있었으며, 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진학 목사가 창립에 이르기까지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복음사역에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먼 길을 달려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를 축하해준 선무배목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고향에 돌아와 목회의 마지막을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것을 다짐하였다. 마무리로 진등용 목사의 헌금축복기도와 진등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태희 목사 초청, 나라·민족·지역발전 위한 기도회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 초청 기도회를 지난 4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온양그랜드호텔 코스모스홀에서 가졌다.

1부예배는 이경팔 목사(삼일회장, 태민교회)의 사회로 정해곤 장로(후원회장)의 기도 에 이어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태희 목사는 빌 3:17-21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눈물의 경고'라는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각성'이라며 한국교회 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에 바울이 흘린 눈물을 흘릴 목회자들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김소윤 감독(교문)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피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힘

쓰는 후배목회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본부장 이두영 목사(삼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기도회는 임용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에서 77민족복음화성회는 영적으로 잠자던 한국교회를 일깨워 민족을 복음화시킨 복음화운동으로 1) 성경충만의 역사이며 2) 교회부흥운동 3) 기도운동 4) 전도운동 5) 구국운동으로서 77민족복음화 성회 이후 신원록 목사가 초대회장으로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부흥운동을 펼쳐 왔던 운동이다. 잠자던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교회부흥운동의 요인이 되었으며 가난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빈곤한 한국경제를 성장게 하는 시장경제운동,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나라사랑 민족사랑인 애국애족운동 구국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오던 중 2006년 2대 총재로서 이태희 목사가 그 뒤를 국내 110 지역과 해외 60여 개 국에서 활발하게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아산시민족복음화는 본부 부총재로서 지역대표회장을 2008년 창립 이래 11년간 연임하여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임원들을 위시한 40여 교회가 협력하여 준 것을 치하하고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난 4년 동안 매월마다 참석하여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여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기도회는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박노섭 목사(삼일회장, 삼광교회), 국가와 아산시의 지



도자를 위하여 오재천 목사(삼일회장, 광혜교회),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이광로 목사(지분위원, 아산중앙침례교회), 국가 안

보와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박건구 목사(영광대학 겸목), 아산시 복음화와 연합회발전을 위하여 박자영 목사(지분위원, 큰빛교회), 성평등정책과 인권조례안 반대를 위하여 임기

석 목사(교문)가 기도하였다.

3부 보고회에는 조이철 목사(삼일회장, 아산성결교회)의 인도로 이명수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보고와 이기연 목사(아산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가 연합회 업무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고하고 강상철 목사(교문의 오찬기도로 마무리하였다.



■ 생명의 말씀 ■



백 영 자 목사

· 전략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옳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나를 나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바울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약한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동역자로 써 주셨습니다.

바울은 신품과 아볼로라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지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앞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바울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나를 약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만족되지 못하여 난 자였고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였습니다.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고 핍박받고 괴로웠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라고 고백했습니다. 약한 것이 내가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 하나님은 바울을 자족하게 하셨습니다. (9절)

영국에는 '사람의 욕심은 밑이 없는 우물과 같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만족할 만큼 가지지 못했지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부족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아프지만 더 아프지 않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라고 했습니다.

30여 년 전 전라남도 녹동 바닷가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쉼 수 있고 틀에 나가면 나물을 뜸을 수는 있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었지만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했으

면 뱀의 유혹을 이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구원)을 주신다' 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7~8). 바울은 자족함으로 모든 것이 유익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벽에 던지는 공과 같습니다.

3.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9절)

영화감독이 배우를 택할 때나 축구 감독이 선수를 택할 때도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누군가에게 청함 받고, 택함 받아, 쓰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 중의 과수원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 1:12~13).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목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 교사나 전도자나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은 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표적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사냥개는 사냥하고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직분지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여 불평한다' 고 했습니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믿어질 때 이 순간에도 나 되도록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청함 받고, 택함 받아,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 정

ACTS, '길 위의 인문학'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ACTS, 총장 정홍호 박사)가 3년 연속 선정됐다. 2013년 시작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낙태 책임 흐려



서울 명이비인후과 원장인 이명진 성산윤리연구소장은 최근 의료윤리 칼럼집인 '의료와 윤리 II'를 출간했다. 2013년

출간 이후 5년 만의 개정증보판으로, 8장에 걸쳐 162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원장은 의료기술직업인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가 되려면 의료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학원 이사장에 옥수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지난 4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옥수석 목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는 인사 및 제도 소위원회 박규하 이사과 건축 및 재정 소위원회 김형길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옥 목사는 "총회 임원들과 잘 소통해 학교를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신대, 환경부 그린캠퍼스 선정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19 그린 캠퍼스 조성대학'에 선정됐다. 그린 캠퍼스 조성사업은 친환경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성빈 총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후대에 온전한 생태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절망의 이 땅에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2019년 부활절을 맞았다. 인간의 허무와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의 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극치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죽음의 어둠의 일들이 판을 치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경시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

아직도 부정과 부패, 음란과 타락, 편 가르기와 이념의 노예, 전쟁의 위험이 상존한 이 땅에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란다. 용서와 화합이 상식화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흑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복된 땅과 주민들에게도 부활의 밝은 빛이 비취기를 소망한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보장된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한숨

과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한국교회와 어두움의 일과 얽매기 쉬운 일들을 버리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담보권으로 '인본주의'와 '생명 파괴'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들이 되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장양식) 1부
- 반영향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자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 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교계, 낙태죄 위헌 결정에 강력히 반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계는 태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로, 이를 결코 인간이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이번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모시킨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교연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 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비인간의 극악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도 한자에 이번 위헌 결정이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며, 심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이가 이에 대한 생사를 결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한교총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자의 이번 판단은 태아의 생명, 즉 태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엎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교총은 앞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간다. 이 최소한의 제한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요, 법원과 법관들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도 이번 판결을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모태의 생명과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다”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맡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도 이를 두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며,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다”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을 도외시 하고, 일부 여성의 인권에만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라 지적하며 “생명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사람이 다룰 수 없으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순절 한국교회 뒤덮은 생명의 물결

종려주일 하루에 1,127명 성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부활절을 한 주 앞둔 현재까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국의 42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드려 2,746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4월 21일 부활주일에도 4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져 고통 받는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이어갔다.

특히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종려주일인 14일에는 전국의 10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가 이어져 섬김의 절정을 이뤘다. 이날 27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남북교회(담임목사 윤훈기)와 120명이 희망등록에 참여한 위례광명교회(담임목사 심명석), 102명이 희망등록한 사랑선교교회(담임목사 이기주), 100명이 참여한 대구복성교회(담임목사 김경진)를 비롯해 은천교회(담임목사 홍순설), 은성침례교회(담임목사 최종목), 함덕교회(담임목사 정용식), 영진교회(담임목사 조범준), 평화반석교회(담임목사 이용현), 화살교회(담임목사 김주용) 등 전국에서 무려 1,127명의 성도가 고난주간을 맞아 생명나눔의 선한 사역에 동참했다.

남북교회 윤훈기 담임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은혜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생명나눔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왔다”며 “성도들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다”고 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991년 본부 설립과 함께 현 이사장인 박진탁 목사가 국내 최초로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시작된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은 지난 28년간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지금까지 3,500여 교회가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것을 비롯해 전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중 약 75%가 개신교인이라는 통계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주셨듯이, 그 사랑을 본받은 교회들도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석문화대, 지역 어르신 치매극복에 앞장

충남 치매 관련기관 세 곳과 관학협력협약

백석문화대학교는 충남 치매 관련기관 세 곳과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치매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대학은 지난 15일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충청남도공역치매센터와 천안시서북구치매안심센터, 천안시 동남구지매안심센터와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치매 진단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재학생 관련 봉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괄부총장을 비롯해, 최선기 산학협력단장, 조정용 교무처장, 간호학과와 방사선과 교수진, 충청남도공역치매센터 이석범 센터장, 천안시서북구치매안심센터 김경자 센터장, 천안시 동남구지매안심센터 황민자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장들은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약 77만으로



노인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는 물론 광역단체, 지자체지단체도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각자 가진 자원을 심분할 통해 노령화시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차별과 혐오 빙자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독재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여당의 동성애 독재를 규탄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 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4월 23일 12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여당의 동성애 독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겠다고 2019년 2월 20일 발표했다.

사회적 소수자라 함은 선천적인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선천적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를 위한 동성애자 등을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이를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궤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밝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혐오와 차별로서 재갈 물리기 위한 동성애 독재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의 행위는 배척되어야 한다. 죄인은 사형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하고 혐오하여야 한다.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와 차별로

봉쇄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행동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된 규탄집회에는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김원평교수, 박성제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과 대한민족지킴이 불교도총연합회 이근호 대표, 이현영 국민을 위한 대안대표, 정진주 행동하는 자유시민가짜인권위원장 등도 발언했으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홈페이지 : www.agtc.or.kr

A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1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2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3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G ASSEMBLIES OF GOD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월례회 채워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4월 23일(화) 오전 11시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32-4에 위치한 주님의교회(담임 방재홍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예배는 모든 회원교회의 부흥과 은혜충만을 위해 1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 목사님과 사모들은 예배 40분 전부터 전심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성기찬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신홍섭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권점식 목사의 설교, 재무 권택선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 순

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2부 지방회 시간에는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 토의를 가진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4월 23일(화) 2019년 상반기 아유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회원들은 아유회에 앞서 예배를 드린 뒤 강화도 일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 평화전망대와 풍물시장을 구경하고, 이후 교동면으로 자리를 옮겨 연산교 유배지와 대동재시장을 돌아보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주사랑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드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4월 23일(화) 오전 11시 주사랑교회(담임 강신홍 목사)에서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박흥열 목사(오성사랑

교회)의 기도, 표현자 목사(시냇가예심이나무교회)의 성경봉독, 사모회의 특송에 이어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막 11:1-10 말씀을 본문으로 '쓰임을 받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한날 미물에 불과한 어린 나이가 예수님을 태우고 성전에 입성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

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훗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받는 자들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정세창 목사(은혜교회)의 헌금기도와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의 축사와 김기인 목사(벨렐교회)의 권면, 그리고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인사말씀과 광고로 강목사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타 교단에서는 은퇴의 나이이지만 우리 교단은 건강할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해나 기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강신홍 목사가 준비한 선물과 점심을 마친 후에 인근 찻집에 모여 앞으로의 일정 및 임원회를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그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보관위에 여남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 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

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1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귀환 목사 손 현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안홍규 목사

고문 정영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종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창규(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대표회장 전동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공동회장 전동용 목사, 노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호환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치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용 목사, 방연식 목사, 박관용 목사, 최정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선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기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지도위원 안홍규 목사
부회장 손우 오세환 목사
사무총장 최규명 목사
공동총무 임은석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후원회 정해근 장로
후원회 배성현 장로, 김영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성근 장로, 오재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선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재식 장로, 한정섭 장로, 이창식 장로, 권용기 장로, 차영한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성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기업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새소망교회

대표목사 전동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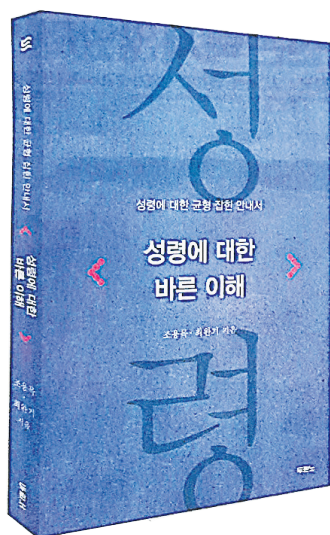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 총회장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표어 오직 성령 충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교회 041) 542-4540
H-P 010-7406-4540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가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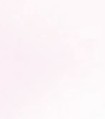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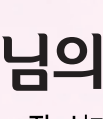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교문	교단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임웅재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신재영 목사 새기침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수 목사 (영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영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온혜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덕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정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기침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목교회)	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철현 목사 (경강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병덕 목사 (기경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순복음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연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청천교회)	박홍덕 목사 (은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창 목사 (동울신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교회)	김연목 목사 (영광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발발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덴교회)	박정신 목사 (은신교회)	양은혜 목사 (영조교회)	한명집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화숙 목사 (연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강과평교회)	정관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조창민 목사 (순복음별빛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평교회)	정예서 목사 (예수장기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홍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홍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홍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홍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홍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홍판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Midwest University, 개교33주년 기념 총동문회

동양이민자가 세운 최초의 미연방정부 인준 종합대학교



총장, Dr. James Song



동양이민자가 세운 최초의 미연방정부 인준 종합대학교



총동문회장
박동호 박사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제임스 송 총장이 내한하여 재학생, 동문, 교수들에게 격려하고 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Missouri주 Wentzville에 위치한 대학교로서 세계 인재발굴과 양성을 목적

으로 1986년에 제임스 송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동양이민자가 세운 종합대학교로는 최초로 미연방정부 교육부와 대학인가기관인 ABHE 및 ATS의 인준을 받은 대학교이다.

Midwest는 지난 2016년 12월 17일자로 미국 연방 정부 국무성 (USA Department of State)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 및 대학생 인턴에 대한 Exchange visitor Program 인 J-1 Visa Sponsor (허가 번호 No p-1-21241) 인준을 받았다. 미국국회, 주정부의회, 주정부, 각시정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 비즈니스에서 전공에 맞는 인턴십을 할 수 있다.

J-1 Visa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셜 번호 (SSN)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며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학위과정을 병행할 경우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현재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1년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각 전공별로 인턴십

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부터 항공학과에는 국제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서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미국 본교에 유학와서 2019년 현재 항공기 조종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Midwest University 본교는 ESL 과정을 비롯하여 △국제 항공대학 과정 △경영대학원(리더십대학원) 과정 △Ph.D. in Leadership 과정 △교육대학원(원) 과정 △음악대학원(원) 과정 등 다양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 DC본교는 별도의 SEVIS I-20를 발행하고 있고, 서울 본교에 Site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의 방콕, 남미 페루의 리마에 Site하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Midwest University는 전문인 동문들이 세계 60여 개국에서 교수, 정치인, 경제인, 각 기관장, 지휘자, 성악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정한 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화해중재원 개원 11주년 맞아 기념감사예배 드려

기독교인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 소송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이하 화해중재원)이 개원 11주년을 맞았다.

화해중재원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 나은 화해와 중재의 미래를 바라보며 지난 4월 16일(화)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최병락 목사)에서 개원 1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사단법인 이사들과 운영위원, 임직원들을 비롯해 많은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쁨으로 드렸다.

환영사를 전한 부이사장 이영복 장로는 “화해중재원의 개원 11주년은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같이 이루어져 오느라 감사하다. 11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장 박재윤 장로는 “2008년 3월에 재야 기독교법조인들과 중진 목사님들, 신앙적 기업인들이 모여서 화해중재원을 만들었다. 비재판적이고 성경적인 사랑과 화해의 계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발전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예배를 계기로 기일종 박자를 기하겠다”고 인사했다.

오준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백현기 장로(부원장)가 기도하고, 최병락 목사(부이사장)가 롬 8:26-28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처럼’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토라에서 시작된 법이 법을 나눔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구약의 613개의 법을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니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신다. 그리고 내 안에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겨나게 됐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율법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을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신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화해중재원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빌 비를 모르는 사람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처럼 화해중재원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돕고, 무엇을 어디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분체의 불구덩이로 함께 들어가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화해중재원을 통해 모든 교회들의 문제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성령님처럼 사역하는 화해중재원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월드비전, 긴급구호금 3억 증액 지원

잠정 추정치보다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증액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강원 고성·속초 산불로 인한 아동 및 이재민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긴급구호 지원금을 기존 2억에서 총 3억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월드비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총 1억 원 상당의 구호키트를 전달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10일 산불정기이 현지 피해상황이 잠정추정치(630ha)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천757ha(1천757만㎡)라고 발표함에 따라, 아동과 이재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 규모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월드비전은 증액한 지원금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이재민 가정에 생필품 구입비용 약 6천만 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월드비전 강원 산불 긴급구호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긴급구호금 (아동 긴급구호 지원금)	1억 원
구호키트 (아동 긴급구호 지원금)	1억 원
생필품 지원 (아동 긴급구호 지원금)	6,000만 원
사후 재건 지원 (아동 긴급구호 지원금)	4,000만 원

해당 비용은 피해 가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하는데 쓰이며, 가정당 약 300~50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산불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아동을 위해 아동보호프로그램(Child Friendly Space)을 운영하는 데 약 4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보호프로그램은 월드비전이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미술훈련, 아동 놀이, 연극 등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이 밖에도 주거지가 전소한 세대 중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용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국장로교 신학대 찬양으로 한 자리에

5월 9일(목) 오후 6시, 사랑의교회에서 개최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에서는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 연합찬양제(5월 9일, 사랑의교회 사랑이트채플)를 개최한다. 한국장로교 신학대학생들의 연합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교회음악의 모범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12년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시작하여 금년 제8회를 맞이한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운동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신학대학생들 때부터 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찬양제가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유일한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장로교단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그 의미를 말하였다.

금년은 9개 대학, 10개 팀이 합창 혹은 중창으로 참가하여 ‘시온성’,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거룩하신

주’, ‘우리 때문에’ 등의 곡을 부른다.

참가팀은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뿌리멘탈(합창), 장로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에이레네(중창), 서울장신대학교 밀알중창단(중창), 장로회신학대학교 에마분 찬양선교단(중창), 안양대학교 상무스승가대(합창), 백석대학교 백석대학합창단(합창), 백석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 글로벌이전양대(합창),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티갈(중창), 칼빈대학교 오르중창단(중창),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콘서트포어(합창)가 참가를 하며 마지막에는 참가 학생 모두가 연합으로 합창을 연주하게 된다.

이번 찬양제에는 특별히 서울대학교 합창단이 초청팀으로 참가를 하게 되며, 찬양제는 5월 9일(목) 오후 6시,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다. 참관은 무료이다. 문의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02)764-0360.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인도 첸나이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

서울강남지방회 박진철 목사



박진철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박진철 목사(주흥순복음교회)는 최근 복음의 불모지 인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지역 인도 첸나이에서 70교회를 개척하고 고아 2,000명 이상을 길러낸 스테판 목사의 초청으로 인도 첸나이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으

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박진철 목사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일일이 환자와 성령충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안수기도해 주며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세계인명사전 후스루에 등록되어 있기도 한 박진철 목사는 인도첸나이교회에서 목회자교육 특강과 성회를 인도했다.



일레븐연예인축구단과 만사소년FC 친선경기

대한민국축구선교회 주관

대한민국축구선교회(대표 박애복 목사, 사무총장 김순구 목사)는 지난 4월 20일(토) 기흥 레스파이 축구장에서 일레븐연예인축구단(단장 최수종)과 만사소년FC(교본 천종호 부장판사)와의 친선경기를 갖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작은 불씨와 같은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축구선교회를 통해 미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귀한 시간이 되었다. 비쁜 일정 가운데도 뜻 깊은 행사를 위해 가까이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준 일레븐연예인축구단(단장 최수종)과 후원과 봉사, 섬김으로 함께해 준 많은 분들로 인

해 청소년들이 밝고 맑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친선경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5분씩 4쿼터제로 진행됐고 오후엔 만사소년FC축구단 지역팀과 UN글로벌의국인축구단 간 친선경기로 치러졌다. 만사소년FC축구단은 매년 연예인팀과 친선 경기를 갖기로 했다.



연예인축구단 최수종 단장과 축구선교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사무총장 김순구 목사(교단 스포츠선교위원장)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1)폐능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살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플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물어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먼 길 가야 하오

한 벌의 옷을 받아입고
한 장의 표만 들고 먼 길을 가야 하네
가는 길은 있으나 돌아오는 길은 없는 여정
멈추어 설 수도, 쉬어갈 수도 없는,
도착시간도 정해진, 가야만 하는 이 길…….

그대여!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를 아는가?
해 지고 어두운 밤, 등불은 준비되었는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뵈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떠났는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으니
길을 잃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길이 멀어도 내닫지 말고, 원근 간 게으르지 말며,
헤진 옷 기워 입고, 씨를 뿌리며 감사의 단을 쌓아
사랑으로 산을 넘고, 은혜의 강을 건너서
두 팔 들어 안아 주실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날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잊지 말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장충, 동해안 산불피해 교회 방문 성금 전달

강원도 토성면 산불 피해지역 방문 복구지원비 전달하고 위로 시간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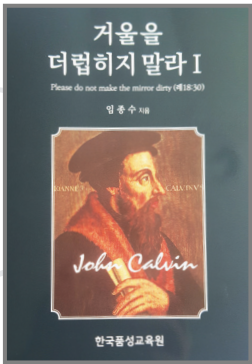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복지위원회(위원장 남태섭 목사)에서는 22일 강원도 토성면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장성전교회(예장 합동) 분종복 목사에게 복구지원비 일금 이백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전교회는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남태섭 목사는 ‘직접 와보니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며 ‘한국교회가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도움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아 직접 오게 되었다’고 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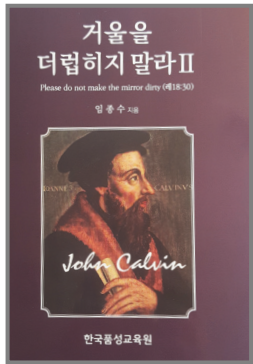
분종복 목사는 ‘사랑의 방문과 성금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이곳의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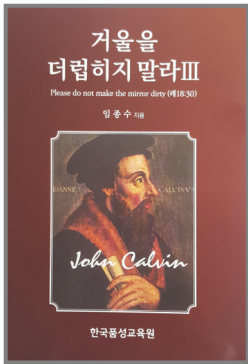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종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사설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바로 다 음남 김 위원장이 한·미 양측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 냈다. 그런데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피력한 입장을 보면,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비핵화 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를 “국가의 근본 이익” 이라 했고, “핵으로 핵 위협을 종식시켰다”고 했다.

핵을 근본 이익으로 규정한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핵 폐기 거부 공식화인데 어떻게 비핵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나. 의도적 곡해를 의심할 지경이다. 김 위 원장 연설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한 측면이 있 다. 국군통수권자의 잘못된 이해는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

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일왕 즉위식을 갖는 일본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이 열린다. 각국의 외교 열전 속에서 한국은 편향되지 않은 중재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재 외교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먼저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제 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을 돌려세워야 한다. 그런 노력 하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을 먼저 설득하려고 거꾸로 가 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 핵화가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전략자산의 한반 도 전개 중단,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 철수를 포함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도 그차이 때문이었다. 앤 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0일 “북한 측은 미국 전략자산은 물론 광·하노이에 있는 무기 제거도 요구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주변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지금 방향 잃 은 한국 외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통 일부장관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연철 후보를 임명했다. 이같은 편향적 인사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미국에 개의치 않고 북핵 문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는 13일 “김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단 8:25) 북한은 핵무 기를 개발해 놓고 큰 체하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 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평화의 세 상이 임하기 위해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단호히 대응 해야 한다.

특정 종교의 테러 경계해야 한다

21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37개의 도시 에 있는 성당과 교회, 호텔 등에서는 테러범에 의해 끔 짝한 살상행위가 벌어졌다. 부활절 예배 장소에 폭탄을 터뜨려 290여 명의 사망자와 500여 명의 부상자가 나 게 한 것은, 천인공로할 행위로 반인륜적·반사회적· 반종교적·반평화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이런 테러를 획책한 단체가 이슬람 과격 단체로 의심받고 있어, 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이웃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미 스리랑카는 26년 동안 종교와 민족의 갈등 으로 내전을 겪은바 있다. 그 내전이 끝나고 불과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처럼 끔찍한 특정 종교에 의한 살상이 벌어진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과 테러는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테러를 일으 키는 특정 종교를 인정하여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것처럼(비단 이번 사 건이 아니더라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 만, 실제적으로는 종교간 갈등과 테러의 중심에 서 있 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종교간 갈등과 다름이 없어 야 하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테러를 일으키는 종교의 유인을 막고, 테러 분자들이 잠입하지 못하고, 테러 집단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도, 특정 종교로 인한 테러와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일 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68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 (요 17:17)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8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9년 5월 20일(월) | 4. 사무총회 : 5월 20일(월) 오후 2시 |
| 2. 등 록 : 5월 20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2 |
| 3. 개회예배 : 5월 20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

2019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웅재

5월 19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9년 5월 19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총 무 목사 신재영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교사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진리' (요 14:6)

- 대 상 : 교회학교 교육 담당자 및 교사
- 교 재 : 2,000원
- 특 징 : ① 여름성경학교 활동프로그램 시연 및 자료제공
② 새로운 찬양 율동 보급
※ 찬양곡과 찬양율동 영상은 교단 및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③ 중·고등부 특강
- 일 시 :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03번길 031-233-2922)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연 락 처 : 전화 02-2675-5181, 팩스 02-2677-5181
이메일 aogk@aogk.org

* 참가비는 없으나 교재를 구입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 참석을 미리 알려주시면 교회별로 자리를 배정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